



조건 제 8065 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6년 4월 15일 수요일 (음력 2월 28일)

민형배, 통합시장 후보 확정... 시도민은 변화를 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민형배 후보가 14일 오후 당내 최종 경선에서 이긴 뒤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말하고 있다. 최기영 기자 bluesky@gwangnam.co.kr

6·3지방선거 D-49 민주당 통합시장 경선 결선

당심·민심 동시 확보...김영록 꺾고 본선 진출
“정체된 전남광주 깨우고 시민 주권정부 완성”
복합행정 역량 강점...‘메가시티’ 미래비전 기대

민형배 후보가 6·3 지방선거 더불어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관련기사 2·3·9·19면 ‘혁신과 개혁’을 내건 민형배 후보가 ‘행정 관료와 안정’을 앞세운 김영록 후보를 접전 끝에 꺾고 승리했다. 이에 따라 통합시 인구 320만·연간 예산 25조원의 메가시티의 초대 통합시장에 한걸음 다가서게 됐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차기 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 결선 투표 결과 기호 1번 민형배 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민 후보는 승리 직후 “민형배를 믿고 선택해 준 시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의 지지를 두렵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들

겠다”며 “이번 결과는 정체된 전남광주를 깨우고,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통합의 길로 나아가려는 주권자 시민의 엄중한 명령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함께 경쟁을 펼친 김영록 후보와 강기정·신정훈·주철현·정준호 후보 모두 전남광주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제 전남광주 대도약을 위해 모두와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가겠다고 더 크게 통합하고, 더 깊게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텃밭인 전남광주지역은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대통합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역대급으로 높은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 공천권을 확보하면서 통합특별시장의 초대

수장을 향한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와 시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40년 만에 하나가 되는 전남과 광주를 이끌 수장을 뽑는 전초적인 이번 경선은 단순한 당내 후보 선출을 넘어 향후 통합특별시장 권력 구도와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변수로 평가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압도적인 지역 정치 지형상 결선 결과가 본선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선거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도 컸다.

민 후보는 경선 진행과정에서 확실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당원과 민심을 동시에 공략했다. 미래 청사진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며 유권자들을 설득했다는 분석이다.

경선 막판에는 전남 동부권 대표주자였던 주철현 의원과 단일화를 이룬 점도 주효했다. 광주를 기반으로 한 조직이 전남 동부권으로 확대되면서 세 확장이 바람을 타고, 전남권 전반으로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경·지방행정·입법 경험을 아우르

는 복합 행정 역량을 강점으로 내세운 민 후보의 전략이 통합특별시장이라는 새로운 정치·행정 질서 재편 국면에서 유효하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이번 선택에는 ‘명망가 중심 연대’보다 ‘생활 현장 기반 시민주권 정치’를 내세운 민형배 후보를 통해 통합특별시장 출범에 따른 변화를 직접 체감하려는 기대가 반영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과가 ‘혁신과 안정’의 구도 속에 통합특별시장 출범이라는 거대 프로젝트 속에는 띄는 변화를 갈망하는 민심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힘을 얻는다.

민 후보는 조만간 경선사무소를 빠른 시일 내 선거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본선 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경선 과정에서 제시한 산업·에너지·균형발전 전략을 중심으로 본선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조직 통합과 재정 운용, 권역별 기능 배분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여수세계섬박람회, 국가가 직접 챙긴다

이재명 대통령, 중앙정부 차원 점검·지원 강력 주문
김민석 총리 16일 방문...조직위, 환경정비 등 착수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가 개막을 5개월 앞두고 주행사장 공사 지연과 현장 환경 관리 문제 등이 불거지며 ‘제2의 잼버리’ 우려가 제기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정부 차원의 점검과 지원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인프라 조성 과 홍보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점인데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광주 통합 이후 처음 개최되는 국제행사인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가 5개월도 남지 않았다”며

“6월 지방선거로 인한 행정 공백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대회 준비를 전적으로 지방정부에만 맡겨두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빈틈없는 점검과 필요한 지원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현장 점검으로 곧바로 이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는 16일 여수 엑스포장 컨벤션센터에서 섬박람회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 개도 부행사장으로 이동해 조성 과정과 관람객 편의·교통·안전 대책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총리

실과 행정안전부, 전남도, 여주시, 조직위원회가 함께 참여해 공청회와 운영 준비 전반을 확인하는 일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불거진 준비 부실 논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성격이 짙다. 온라인에 공개된 모 유튜브 홍보 영상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행사장과 폐어가 방치된 섬 지역 모습이 드러나면서 환경 정비와 일정 관리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다. 국제 행사임에도 기본적인 현장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준비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상황이다.

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제기된 문제를 전면 수용하고 일정 관리와 현장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행사장 기반시설 공정은 현재 76% 수준으로 6월 완료를 목표로 하

고 있으며, 핵심 상징시설인 ‘주제섬’은 42%로 7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전시관은 특수 강화텐트 형태로 6월까지 설치를 마칠 예정이며, 전체 공사는 7월 종료 후 8월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일이다.

환경 정비도 병행되고 있다. 폐어구와 폐선박 440척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정비에 착수했고, 도서지역 생활폐기물 수거 주기를 단축하는 등 현장 관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숙박·음식·교통·청결·안전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손님맞이 대책도 마련됐다.

관람객 수용 대책 역시 구체화되고 있다. 임시주차장 12곳에 7400여면을 확보하고 셔틀버스 9개 노선을 주중 30대, 주말 최대 60대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박람회 기간 주행사장과 섬 지역 버스는 무료로 운영하고, 해상교통 6개 노선에는 여객선 반값 운임을 적용한다. 이현규 기자 gnnews1@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 회원모집 안내

구분	분양금액	구좌	회원특전
VVIP (A형)	700	3좌	- 정회원 1인, 지정회원 2인 그린피 면제 - 정회원 동반 3인 그린피 50% 할인, 골프탈 할인 - 무료회차 25회(비회원, 지정회원 위임시 70%할인) - 무기명카드 1매 / 년 120회 (월 10회 소멸형 / 1일 1회)
VVIP (B형)	700		- 회원업증, 무기명 1매, 골프탈 할인 - 그린피 70% 할인, 연 60회 (1회 4인, 1팀 기준 / 월 6회 소멸형 / 1일 1회)
VIP 정회원	500	1좌	- 정회원 1인, 지정회원 2인 그린피 면제 - 정회원 동반 3인 그린피 50% 할인, 골프탈 할인 - 무료회차 20회 - 무기명카드 1매 / 년 120회 (월 10회 소멸형 / 1일 1회)
하트 정회원	320	10좌	- 정회원 1인, 지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골프탈 할인 - 무기명카드 1매 / 년 72회 (월 6회 소멸형 / 1일 1회)
해피 정회원	180	4좌	-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골프탈 할인 - 무기명카드 1매 / 년 36회 (월 3회 소멸형 / 1일 1회)

회원권 문의 전화 ☎ 061)330-5004

· 2026년 연단체모집

- 신청조건 1부 2팀, 2부 3팀 이상 · 레스토랑 중 · 석식 이용시 우선 배정
- 모집코스 격월(회, 대) 또는 대중제 선택
- 접수기간 2025. 10. 14. (화) ~ 모집 종료시 까지
- 할인혜택 월별 그린피 추가 할인 혜택
총무, 회장 2인 고정 할인 그린피 제공(3팀 이상 진행시)
레이디, 시니어 추가 할인
7,8월 연단체 진행시 특별 할인 혜택
연말 우수 연단체 선별하여 멤버 전원 혜택 제공
- 접수방법 연부강 신청서 작성
(신청서: 해피니스CC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자료실)
· 이메일 접수: syyoan1@happinescc.co.kr

· 골프호텔 객실

